地表下 二·八m 粘土層最底部 即 最下 砂層直上部에는 爐址 또는 居住面이라고 생각되는 燒土層이 多量의 木炭과 함께 나오며 그 面에서 瓦片、格文、繩蓆文里灰色硬陶 및 無文混砂褐陶片들이 깔려서 나오고 또 冂形鐵製꺽쇠도 나오고 있다。

土器는 金海土器와 同質이지만 그와함께 刻線文을 가진 古新羅式土器片도 間或 나오고 있으며 特異한 것은 몹시 壁이 엷고 內外面에 끄름을 바르고 반들거리게 磨硏한 黑色磨硏土器 即 中國의 黑陶式土器가 나오고 있어 注目을 끌었다。

이번 發掘은 앞으로 西半部에 對한 發掘을 完了한 뒤에 仔細한 報告書를 내놓을 豫定이지만 이 地帶에 石器人이 없었고 三國時代初期人들이 처음 자리 잡았다가 大洪水로 밀려 나간뒤 李朝最末期까지 사람이 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으며 發掘된 土器片들을 調査硏究함으로써 아직 모르고 있는 새 事實들이 앞으로 밝혀질 것을 期待하고 있는 바이다。

貞祐四年銘高麗靑銅半子

黃 壽 永

最近 忠淸道에서 出土되었다고 傳하는 高麗靑銅金鼓 大小 二個를 市內 古物商에서 注目한 바 있는데 그中 大形品에는 陰刻銘文이 있어 金石遺文의 新例로 이곳에 紹介하여 둔다。 이들 兩個는 同一場所에서 동시에 發見된 것으로 추측될뿐 다른 知見은 알 수가 없었다。

形態는 모두 우리나라 羅麗禁口의 一般型으로서 鉦鼓形의 圓盤을 이루어 表面은 平坦하고 裏面은 좁은 口緣만이 內側으로 달려 있는 通式에 속한다。 오랜 土中으로 全面에 靑錆가 덮혀 있는데 側面에는 兩耳가 달려있어 懸架 實用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表面은 太細三重線으로 內外로 區分하였는데 內區에는 子房과 蓮花紋을 外區를 돌아서는 雲文을 각기 陽刻하고 있다。 側面에는 두줄의 線條를 돌렸으며 그 內緣을 돌아 다음과 같은 一行의 銘文이 있다。

貞祐四年丙子三月□□寺匠納半子重六斤棟梁ㅈ

貞祐는 金 宣宗의 年號로서 그 四年丙子는 高麗 高宗三年 서기 一二一六年에 해당한다。 寺名은 不明이며 半子는 金鼓를 가리키는 文字로서 正豊五(一一六〇)年銘 金鼓①에서 唯一의 같은 使用例를 볼 수가 있다。 이 半子는 金鼓銘에서 보이는 飯子 盤子 鉢子 般子②와 同音異寫인 바 國內에서 「半子」의 新例를 얻은 것은 上記 正豊銘品이 日本으로 流出되어 있음에 한층 貴重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重六斤이라 있음에서 中品임을 알 수 있고 棟梁以下는 人名인듯하나 判讀할 수가 없다。 徑 三二㎝ 側幅 七·五㎝로서 保存이 完全하다。

〔附〕 無銘小品의 形態나 表面의 彫飾은 全혀 大型品과 同一하다。 徑 二〇㎝ 側幅 三·七㎝。

註

① 拙稿 : 高麗正豊銘金鼓(本誌五—八 一九六四·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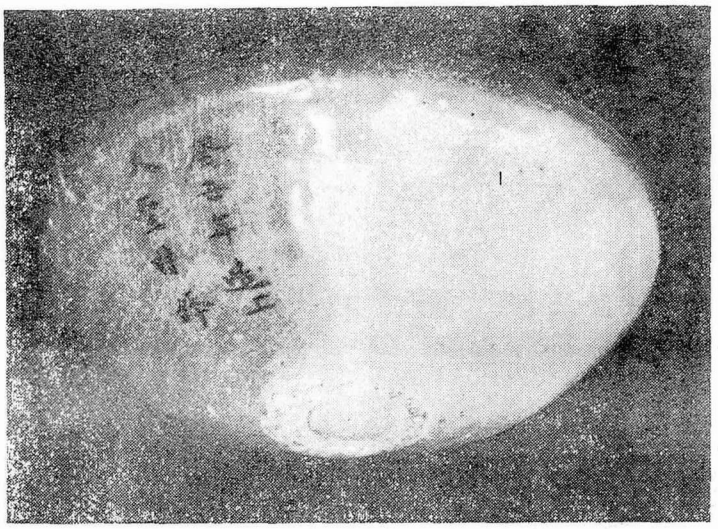
② 拙稿 : 新羅高麗在銘禁口考 (「黃義敦先生記念 史學論叢」所收 一九六〇年 十二月)

癸丑銘靑磁大聖持鉢

崔 淳 雨

李洪根氏 所藏品中에 佛器로 보여지는 소위 「바릿대」樣式의 有銘靑磁大鉢하나가 있어서 注意를 끌고있다。

銅器 또는 磁器로된 大形의 鉢器안에 漸次로 遞減된 同形의 그릇을 大小 五重으로 겹쳐 넣어서 鉢口가 모두 갖진하도록 만들어진 多級一式의 「바릿대」양식의 그릇이 高麗時代의 遺蹟에서 出土된다는 것은 일찍부터 알려진 사실이었다。 이러한 그릇들은 굽다리가 없는것이 특징이어서 그릇이 겨우 놓일 수 있는 정도로 밑바닥을 편편하게 마물었을 뿐이다。 이



技法은 一式의 그릇들을 겹쳐 넣었을때 각기 그릇 안바닥과의 마찰이나 그릇사이의 공간을 없이해서 管理에 간편하도록 考察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高麗時代의 銅器나 磁器에나타난 이러한 「바릿대」樣式은 아마도 古代의 木器、漆器等 佛器에서 이에 先行에는 古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지금도 佛刹에서 흔히 볼수있는 李朝時代의 木器「바릿대」는 이러한 古格의 傳承이라고 생각된다。 李洪根氏의 이 靑磁 바릿대는 初期高麗靑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耐火性흙으로 된 흙비짐눈의 흔적과 굽언저리의 剝釉部分에서 나타난 赭呈色、그리고 精緻하지못한 釉胎等으로 보아 靑磁로서의 古格을 알 수 있을뿐더러 바릿대양식을 잘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릇의 外邊에 銘記된 「癸丑年造上 大聖持鉢」의 九字는 언뜻보면 黑象嵌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黑土로서 筆記한 것이며 字體도 매우 高古한 맛이 있을 뿐더러 그 黑色도 淋漓하다고 하리만치 發色이 좋다。

그릇의 안바닥에는 마무리깎기에서 생기는 매우 작은 圓廓이 나타나 있으며 鉢口에서 一·五㎝部位에 陰刻線을 한줄 돌렸고 이 線條部位로부터는 그릇의 전이 거의 垂直으로 세워져 있다。

釉藥은 灰靑에 가깝고 여기에 약간 酸化된 黃綠과 窯變色이 나타나 있고 어떤 部分에서는 早期靑磁特有의 깊은 맛이 감도는 灰黑色地帶로 보인 곳도 있다。

이러한 釉胎와 樣式에 빛추어 이 銘記의 癸丑이라 함은 아마도 高麗仁宗十一年(一一三三)과 文宗二十七年(一〇七三)의 두 癸丑中의 하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銘記가 象嵌이 아니고 黑土로 된 筆記라는 點으로 보아 象嵌流行以前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으므로 해서 前記條件들과 함께 이것을 文宗二十七年 癸丑(一〇七三)으로 올려보는 것이 옳지 않을가 한다。 그 理由의 하나로서는 仁宗癸丑 무렵에는 이미 象嵌技法이 시작되서 이러한 記銘에는 象嵌을 했을 가능성이 클뿐더러 高麗靑磁가 그 精絕을 자성하던 全盛期였으므로 적어도 이러한 佛前寶鉢을 造上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소홀한 製作을 했을理가 없다고도 생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推斷하면 이것은 筆者가 앞서 本誌에 發表한 己丑銘靑磁瓶보다(註) 三十六年쯤 앞서는 資料로서 初期高麗靑磁編年史料로서는 자못 注目할만한 遺品이 아닌가 한다。 이 銘記에 大聖이라함은 如來佛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佛前寶鉢로서 癸丑年에 만들어 받친것이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樣式의 靑磁바릿대의 例로서는 德壽宮美術館에 所藏된 一式 遺物이 있고 또 筆者가 지난 十月에 發掘調査한 康津 沙堂里 靑瓦窯址의 堆積層에서도 各級크기의 素文靑磁「바릿대」파편들이 出土되었으나 이들 遺物은 釉胎의 質과 樣式 等 이것과 同斷할 수는 없다。

口徑 二四㎝—二五㎝ 高 八㎝

(註) 拙稿 : 己丑銘靑磁瓶 參照 考古美術四卷五號

靈巖의 石塔 二基

鄭 永 鎬